



산불 위험 지속, 6월 3일까지 대비태세 이어간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5.15.)되나, 산불 위험 지속으로 대응체계 유지(~6.3.)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등 비상대응기구 연장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15일(금)부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5월 14일(목) 기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390건) 대비 10.5% 감소했다.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14,323ha) 대비 95.0% 감소했으며, 지난해 영남 산불 피해(104,005ha)를 제외하더라도 8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과거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인 5월 말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5.24.)과 전국동시지방선거(6.3), 행락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일(수)까지 산불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 2022.5.28. 경북 울진 산불(229ha) / 2022.5.31. 경남 밀양 산불(661ha)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진화 자원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주중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도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상황실 비상연락체계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이어간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안길주	(044-205-6170)
		담당자	사무관	전동진	(044-200-6181)
담당 부서	산림청 산불방지과	책임자	과 장	금시훈	(042-481-42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철	(042-481-4255)

